

호국영령에의 관심도 나눔결사

홍법사 홍법바라밀제, 조계종부산聯 순국경찰 추도, 지여원은 보훈장학금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과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6월 6일 홍법사에서 봉행된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에서 기도하고 있다.

석으로 매년 현충일에 개최됐다. 허공마지는 나라를 위해 이름 없이 산화한 수많은 고혼들의 천도를 기원하고 현재의 중생을 자비로 이끄는 의미가 담겨있다.

홍법사는 해마다 홍법바라밀제를 기념해 신행과 포교에 앞장서온 불자에게 홍법대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장학금 대신 육군 논산훈련소 법당 건립을 위해 홍법대상 상금 1000만원을 종단에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법어에서 “내가 이론 모든 것을 국가와 사회, 불교에 회향하는 공심이다. 자성과 해탈을 위한 5대결사의 목적이기도 하다”며 “불심 강한 부산의 불자들이 앞장서서 신도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한 불자가 돼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주지 심산 스님은 “불교계에서 호국영령에 관심 갖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호국영령에 대한 불교계와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불교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서로 신

뢰하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지는 취지로 행사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홍법사는 홍법바라밀제가 끝난 후 올해 ‘나라사랑’을 주제로 ‘제1회 호국의 숨결 그림,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글짓기 대회에는 600여 학생들이 참가해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되돌아 봤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에서는 6월 8일 청사 앞 동백광장에서 ‘순국경찰관 추도식’을 열었다.

행사는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수불 스님(안국선원장), 해원정사 주지 원호 스님(전법도량 의장),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등 조계종부산연합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천도 의식을 봉행하고 순국경찰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부산 지여원(원장 남보터월)도 10일 화영신도시 내 현충공원에서 호국영령위령제 및 보훈가족 위한 행사를 열고 보훈 유가족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지원 기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법석이 잇따라 열수됐다.

홍법사(주지 심산, 동련 이사장)는 6월 6일 경내 잔디마당에서 ‘제21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를 봉

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정만 스님,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화랑 스님,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김영중 경주동국대학교총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는 자승 스님의 법문과 유주 무주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서원하는 천도제가 봉행됐다.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는 부산을 대표하는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법

부모 그리는 스님의 마음 ‘훈훈’ 가야사 ‘제5회 효도큰잔치’ 성료

가야사의 효도큰잔치가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사(주지 정현)는 6월 3일 가야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500여 지역 어르신을 초청하고 ‘제5회 효도큰잔치’를 개최

했다.

주지 정현 스님은 “가야사로 출가한지 43년이 흘렀지만 항상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을 안고 있었다. 우리 지역의 모든 어르신을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양



부산 가야사는 500여 지역 어르신을 초청하고 6월 3일 효도큰잔치를 개최했다.

을 올리고 싶어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현 스님은 “가야동 일대에는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 여러 신도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을 통해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계열 부산진구형장은 “우리 지역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11.4%로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어렵게 여생을 지내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가야사의 효도큰잔치는 진구에서 열리는 경로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행사로, 관에서 해야 할 복지행사를 사찰에서 열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가야사는 매년 6월 지역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자비의 김장김치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 연말 개소를 목표로 지역 아동을 위한 공부방 운영을 계획하는 등 불교와 지역사회 간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일본 문학 속 불교 ‘눈길’

제(齊)의 유형과 선어, 명상과 심리치료, 화두 의식과 돈오견성의 상관관계 등 불교의 총체적 예술과 깨달음을 논하는 장이 열렸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김용환, 부산대 교수)는 6월 4일 부산 연산동 해원정사(주지 원호)에서, ‘불교의 예술, 심리, 그리고 깨달음을 주제로 제1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장휘주 교수(서울대 국악과)가 제1주제 ‘제의(齊儀) 절차와 성격으로 본 제의 유형’을, 진명순 교수(영산대 국제학부)가 제2주제 ‘나쓰메 소세키 작품에 수용된 선어 고찰’을, 인경 스님(동방대학 원대 자연치료학)이 제3주제 ‘명상과 심리치료 명상 프로그램’을, 박태원 교수(울산대 철학과)가 제4주제 ‘화두 의식과 돈오 견성의 상관관계’ 등을 차례로 발표하고, 종합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진명순 교수는 발표에서

“일본 작가인 나쓰메 소세키(1867~1916)는 청년시절 원각사에서 받은 화두를 참구하며 소설(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 선에 대한 많은 내용과 선어를 다량 도입했다. 50대에 들어서면서 매일 오후에 쓴 한시에서 솔직한 선 수행의 과정과 선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내용을 선어를 빌어 자신의 견해로 나타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진 교수는 “나쓰메 소세키의 작품들은 선 수행과 정진도를 가능할 수 있는 장이 된다. 또한 인생이란 대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와 마음의 본체를 깨닫기 위해 평생 정진한 그의 선 사상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나쓰메 소세키는 그의 영정이 1000엔권 지폐에 새겨져 있을 만큼 일본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일본 최고의 근대문학자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법문공부 가장 큰 행복”

박영병 부산교수불자연합회 제8대 회장



박영병(법명 경담, 63·사진) 교수가 부산교수불자연합회 제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6월 2일 부산 해운대 대광명사(주지 목종)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그를 향해 쏟아졌다. 박영병 교수는 합장한 채 눈을 지그시 감았다.

前 동국대 역경원장 무버 스님이 취임 법문을 위해 법석에 오르자 주머니에서 캠코더를 꺼내들고 스님의 법문을 한마디라도 놓칠새라 녹화했다. 자신의 취임식에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큰 스님의 법문을 담기란 쉽지 않은 일.

“대덕 스님께 법을 청하고 가르침을 받는 일을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르침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영병 교수는 1996년 부경대에 불교교수회를 창립했다. 교수회에서 부회장 소임을 맡았던 그는 서암 스님 초청법문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날 들은 법문은 며칠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어요. 선지식의 법문이 지식이나 지식을 넘어서는 법문이 지식이나 지식을 넘어서는 법문이 지식이나 지식을 넘어서는 법문... (중략) ... 법문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풍토를 기르고 싶습니다.”

22년 전 부산교수불자회의 창립은 부산 불교계에 혜성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사회는 빠르게 변화했고 교계와 사회는 소통의 부재로 위축되면서 수많은 신성한 단체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식지 않는 신심과 역대 회장단의 희생으로 부산불교교수연합회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왔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잘 알기에 회장 직책을 맡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다”는 박영병 교수의 겸손함과 스님의 법문 앞에서 보이는 그의 열정과 용기가 부산 불교계의 새로운 위상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원 기자

양지곡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내 알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예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